

중국 단기 어학연수 결과 보고서

1. 인적사항(전공, 중국어 학습기간 등)

저는 ○○○학과 ○○학번 ○○○입니다. 중국어를 살면서 배워본 적은 고등학생 때 제 2외국어를 중국어로 선택해서 수업시간에 잠깐 들은 것이 전부이고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HSK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학에서도 중국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어 실력은 초급입니다.

2. 수학과목(과목, 수업내용, 수업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준비 등)

일주일에 보통 말하기 수업과 종합수업이 1:1의 비율로 이루어졌는데 두 수업 다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셨습니다. 말하기 수업 때는 선생님께서 단어를 정말 많이 알려주셨고 그림까지 직접 찾아주시면서 수업하셔서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도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궁금하던 단어가 있다면 질문을 하면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수업시간이 2주정도 진행된 뒤 부터는 중국어로 된 메뉴판이나 간판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어를 충분히 알려주신 뒤에는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실생활 회화지문을 배웠는데 간단한 지문들이고 앞서 단어들을 모두 학습한 뒤 진도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인 저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기본 회화이외에도 선생님께서는 요즘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대화한다고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제는 없었습니다.

종합수업 때는 발표를 매 수업마다 보통 2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 또한 지문을 중심으로 나갔고 문법과 단어, 성조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발표가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성조를 읽을 때마다 틀려서 많이 봐주셨는데 제 잘못된 읽기 습관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제는 지문의 문장들을 외워서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매 수업시간마다 있었습니다. 대표 2명은 나가서 칠판에 썼습니다.

두 수업 모두 최소 수업시작 5분전에는 교실에 도착하여 미리 앉아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료식 전에 평가를 하는 말하기와 종합수업의 평가 모두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은 9시부터 시작하여 11시쯤 끝이 났는데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성실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두 과목의 평가 모두 편하게 임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통(학교에서 주요 장소로의 교통, 시내교통 등)

학교 주변 교통은 매우 편리합니다. 일정표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일정들 때는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 이동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유 시간 때 여러 곳을 구경하러 다녔었는데 주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대략 20분을 타도 보통 25

위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버스나 전철이 헛갈리고 아직은 타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차라리 저는 (초록)택시를 추천합니다. 시내교통은 아무래도 시내이다 보니까 차들과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정말 많이 다닙니다. 하지만 신호등도 있고 육교도 있어서 번잡하긴 하지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4. 학교안내

(수학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우리 대학과의 상이점, 학교규모 및 시설, 면학분위기 등)

학교는 우리 대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강의를 들을 때 학생이 강의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대학교처럼 학교 내에는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학교 규모는 꽤 큰 편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런 화장실이 아니었고 그런 화장실을 이용해 보지 않은 저희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거의 학교에서는 다들 화장실을 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같이 중국에온 학생들은 모두들 열심히 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많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어 자격증이 있고 중국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아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환경(위치, 학교 주변 환경, 기후 등)

제가 중국에 있던 4주 동안 맑은 날이 없고 항상 흐린 날씨였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괜찮더라도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대비해 작은 우산하나쯤 가방에 넣어서 다닐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할 때도 먼지가 매우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마스크를 챙겨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한국보다는 따뜻했고 얇은 외투를 여러 개 챙겨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어딘가로 이동한다면 꼭 마주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토바이 도로입니다. 오토바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꽤나 생각보다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갈 때 한 번씩 주의를 살피고 건너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초록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건널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신경 쓰지 않는 차들을 많아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살피고 다녀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 외에도 음식점들이 많아 편리합니다.

음식점에서 특이점은 한국은 셀프문화가 많고 특히,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 먹은 후 스스로 정리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은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왔으며 음식도 모두 가져다줍니다.

이것은 그냥 생활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휴지나 물티슈를 한 개씩 조그만 가방에 넣고 다닐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 휴지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휴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도 하나 챙겨서 다니면 좋습니다. 음식을 시키면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더라도 따뜻한 물을 주기 때문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6. 숙소(시설, 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등)

숙소시설은 전반적으로 만족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매일 매일 청소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해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수건과 칫솔, 슬리퍼, 휴지는 매일 새것으로 교체해 주셨고 말씀드리면 침대시트와 베개 덮개도 갈아주셨습니다. 세탁기는 3층에 있으며 한 대이고 크기가 작습니다. 빨래를 많이 돌린다면 방에 널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숙소에 계신 분들 모두 저희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다들 친절하셨습니다.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저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7. 음식(학교식당 이용, 학교주변 식당 현황, 가격 등)

저는 중국에 와서 중국어 공부도 중요했지만 잘 먹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음식이 워낙 기름기가 많고 한국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았고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중국 음식이 잘 맞지 않아 한국 음식과 비슷한 곳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음식과 비슷한 음식점은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였습니다.

☺ 알촌(한국체인점), 각종 프랜차이즈 체인점(맥도날드, KFC 등)>>태희네 한국식당>>멕시코 식당(백화점 6층)>>황면지>>>>와이포지아

<학교주변 음식점>

1) 알촌(약매 알밥), 25위안



한국에도 대학가에 실제로 있는 체인점이라서 아직 중국음식이 익숙하지 않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 중국 마트에서 팔지 않는 밀키스! 음료도 있고 무엇보다 반찬으로 김치가 나옵니다. 중국에 적응하기 어렵고 난 아직 한국 음식이 그리다! 하시는 분들이 가서 먹으면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은 25위안부터 35위안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고 기본 알밥 뿐만 아니라 카레 알밥, 불고기 알밥 등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 태희네 한국식당 (치즈닭갈비, 돌솥비빔밥, 해물볶음밥세트 순), 16~30위안정도



저는 알촌 다음으로 태희네 한국 식당도 실제로 많이 갔었습니다. 비빔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돌솥에 따끈하게 나와서 밑에 누룽지도 가끔 생길 때 있는데 한국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고추장! 아주 한국적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다면 세트메뉴를 시켜도 좋습니다! 음료를 시킨다면 매일 음료가 가장 문안합니다.

3) 멕시코 식당(소고기파스타, 치즈피자), 하나에 거의 60위안



소고기 파스타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격이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맛이었습니다.

4) 황면지



숙소 근처 황면지는 13위안 정도로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중 한곳이었습니다. 맛도 훌륭했고 특히 감자를 추가 한다면 더 맛있었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가 있었는데 둘 다 모두 맛있습니다. 밥과 국은 무한리필입니다. 음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3위안 정도인 콜라나 스프라이트를 같이 시킨다면 더 맛있는 한 끼를 할 수 있습니다.

5) 와이포지아



와이포지아가 한국과 비슷한 맛이라고 선생님도 그러셨고 다녀온 학생들도 그런 말을 하였는데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한국과 중국이 반반씩 섞인 느낌 이였습니다. 와이포지아의 5분의 1정도 되는 메뉴를 모두 먹어보았는데 가장 맛있었던 것은 볶음밥과 딤섬, 새우를 이용한 요리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갈아서 가져다주는 수박주스와 오렌지 주스도 추천 드립니다.

6) 하이디라오 휘귀



이 휘귀집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백탕과 홍탕을 반반씩 한 뒤 소고기 추가는 무조건 해주어야 합니다. 직원 분들도 중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친절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맛 집인 것 같습니다.

<그 외 학교 주변 맛있는 중국 음식점>

호떡집

숙소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황면지 옆에 조금만 가게입니다. 오전 오후에 한 차례씩 문을 여는데 계란이 가운데 있는 호떡은 2.5위안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배도 부르고 맛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들도 많은데 보통 가격은 2위안에서 3.5위안 사이입니다.

8.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제도(담당부서, 담당자, 제공시설 등)

서비스제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단기어학연수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한국에서부터 잘 이끌어주신 담당자선생님부터 중국현지에서 저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시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황선생님 등 모든 분들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수업을 들은 교실도 이번에 저희들이 온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쾌적했고 매우 깨끗했습니다. 저희들이 머문 호텔에서도 저희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중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셨을 텐데 번역기까지 사용하시면서 망가진 곳이 있다면 고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7+1호텔 측에서 상하이에 다녀온 뒤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머무는 방마다 물을 12병 가져다가 놓아주셨는데 정성스런 편지까지 쓰셔서 두고 가셨습니다. 물같이 사소한 것들도 모두 사먹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호텔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위챗으로 보내라고 친절히 명함주시면서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낯선 외국인인 저희들을 잘 챙겨주셔서 단기어학연수 기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9. 소요 경비(현지물가, 항공료, 공공요금, 총 소요 경비 등)

먼저 출발 전 준비한 것들의 비용은 항공료와 비자가 총 60만 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보험 가입은 3만 2천원, 예치금은 10만원 이였습니다. 또한 저는 출발 전에 샴푸나 린스, 종이 섬유유연제 등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구매하였는데 이 비용은 대략 5만 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또한 유심을 공항에서 구매하였고 2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출발 전 사용된 경비는 81만원입니다. 저는 중국에 가기 전 45만원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였고 이 외에도 카드를 들고 갔는데 15만 원 정도를 현지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총 60만원을 소요하였는데 이 돈은 생활비와 기념품, 옷, 신발 등 모두를 구매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대체로 저렴하여 큰돈을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뜰하게 생활한다면 적은 돈을 가져가서도 많은 것들을 사올 수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 중국단기어학연수를 위해 소요된 **총 경비는 141만원**입니다. 총 경비는 중국에 가서 무엇을 사고 먹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0. 문화체험 및 기타 개인 관광

문화체험은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였는데 전통음악, 중국매듭, 서예, 중국화, 오금희, 무술, 중의보양 등 중국의 문화를 소개받는 시간이여서 유익했습니다. 오후에 했던 문화 수업 흥미로웠던 수업은 서예와 중국화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붓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림그릴 때 붓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그릴법한 그림들을 선생님께서 너무 쉽게 그려서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 평소 서예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시간동안 해볼 수 있어서 서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화체험 이외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수업은 황산과 상하이입니다. 두 문화체험 모두 2박 3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황산에서 날씨는 비도 오고 그 와중에 산에 올라간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가이드님이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저런 의미가 있는지 알면서 올라가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물쇠가 매달려있는 다리에서 친구 두 명이서 소원을 빌면 우정이 영원히 간다는 것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야경 이외에도 홍춘을 갔던 것도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홍춘을 보며 내가 사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런 마을 속에 학교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모두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가는 건물마다 도자기와 시계 거울이 놓아져 있었는데 이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게 되며 설명을 들을 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개인 관광>

- ① 포공원
- ② 완상천
- ③ 완다물
- ④ 1912거리

11. 출국 전 준비해야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

출국 전 준비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권입니다. 중국단기교화학생에 선발되었다면 여권이 있다면 유효기간을 살펴야하고 여권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출국 전 까지 여권을 얻은 만들어야합니다. 출국 당일에도 여권을 챙겼는지 꼭 확인해야하고 중국에 도착해서 다시 귀국하기까지 여권을 잘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여행지에서 돌아다닐 때는 여권은 캐리어에 넣어두고 사본을 가지고 돌아다닌다면 분실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심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 연락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유심은 꼭 준비해 가야합니다. 저는 10GB유심을 공항유심센터에서 구매하여 출발하였는데 VPN을 구매하지 않고 유심만 사갔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때쯤 데이터를 거의 다 사용한 뒤 귀국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10GB 유심이 적절했습니다. 밖에 돌아다닐 때도 켜놓고 다녔고 호텔에서라도 그냥 데이터를 켜 채로 사용했습니다. 만약 VPN을 구매한다면 호텔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데이터용량의 유심을 추천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돈입니다. 중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돈을 환전하거나 사용가능한 카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중국 돈을 환전하였지만 추가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들고 사용도 해보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VISA, MASTER, UNION PAY모두 가능) 카드는 작은 가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백화점이나 디즈니랜드, 기념품샵 등과 같은 곳들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로 비상약입니다. 중국에도 물론 약국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미리미리 자신에게 필요한 약들을 구매하여 출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 챙겨야할 약들 종류로는 종합감기약, 두통약, 생리통약, 지사제, 각종 자신에게 필요한 약들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 반창고와 연고도 챙겼었는데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 우산을 하나 넣어서 갔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대부분 비가 왔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몇몇 학생은 우산을 사서 사용하였는데 한국에 있는 것처럼 작은 우산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어에 짐을 싸갈 때 돌아올 때 짐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조금 여유롭게 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압축팩!!같은 것을 한국에서 미리 구매하여 출발하면 귀국할 때 많은 짐 때문에 걱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2. 귀국 준비 시 유의사항

한국보다 저렴한 것들이 많아 옷, 보조배터리, 신발, 기념품등 중국에 있다 보면 많은 것들을 사게 되는데 수하물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구매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짐이 너무 많아 기내용 캐리어를 산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권은 마지막까지 잘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귀국할 때 분주한 상황에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보조배터리는 캐리어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짐을 쌀 때 기내용 캐리어나 가방 속에 넣어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13. 건의사항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14.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한 제언

차기 단기어학연수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내가 중국에 가서 잘 생활하고 중국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공한 단기어학연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살다오자.' 라고 마음을 먹고 떠났습니다. 제가 차기 단기연수 학생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중국어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중국어를 본적도, 말해본적도 없습니다. 이런 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중국 단기어학연수에 온 학생들은 중국어와 관련이 많고 중국어를 한지 최소 1년 정도는 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셨을 때 간단한 말로 대답조차 잘 하지 못했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부끄러웠습니다. 주위 친구들과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중국어를 사용한지 오래되었으니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당당히 행동하였습니다. 모르면 질문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더 많이 알게 되고 점점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위치로 올려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어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과 학생으로 저희 과는 GBS와 중국어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중국어와 익숙한 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에서 지내면서 여기 온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어 관련학과가 아니어도 HSK자격증이 정말 유용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와 관련된 학과라면 이 단기어학연수가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밑바탕이 될 것이며, 전혀 관련 없는 학과라면 세상을 볼 때 더 넓게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지식들을 확장시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연수였으므로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HSK자격증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더 좋은 것은 확실하나 취득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중국인처럼 생활할 기회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책에서 있는 지문형식의 중국어가 아닌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직접 경험해 보며 매순간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후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져 중국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어학연수를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 보았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신청했으면 좋겠고 선발된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5.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 (*자세히 작성)

중국어도 못하는 저였지만 나도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마침내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에서 '어학'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고 불길 했지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녀와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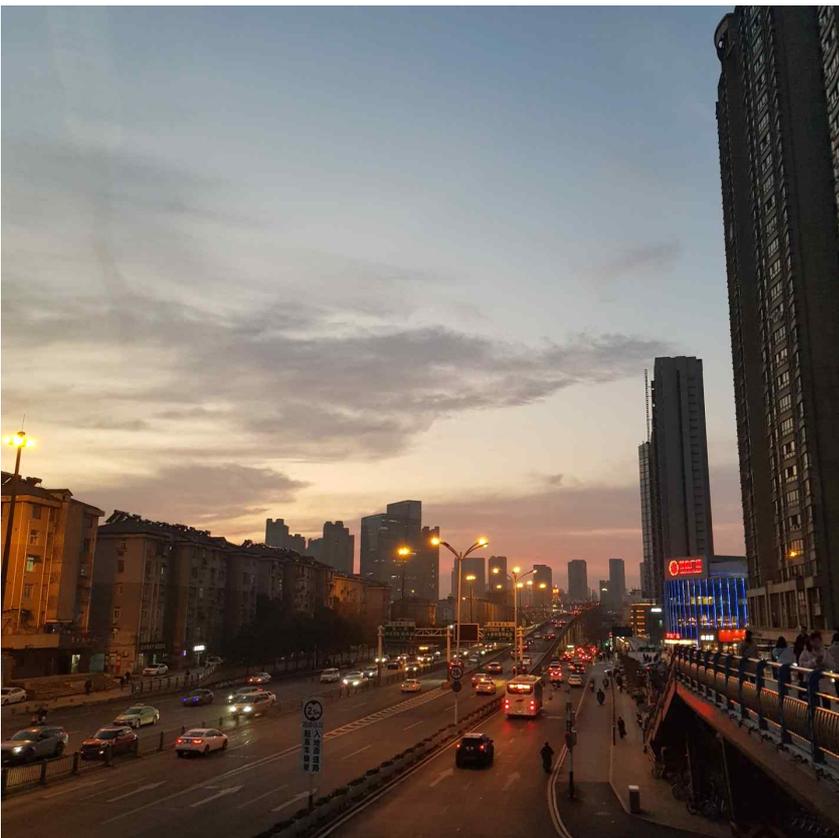
저에게 중국 단기어학연수는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도착하였을 때 생각보다 현지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간단한 물건을 살 때, 밥을 먹을 때 모두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더 열심히 듣고 배운 거라도 적용해보고자 마음을 다짐하였습니다. 점차 중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제 인생에 대해 고민해볼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계기로는 낯선 환경과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잘 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과 멀리하면서 저만의 시간이 생겼던 듯합니다. 대학에 무작정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과연 내가 대입자소서 4번에 썼던 색깔 있는 사람이 되어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던 첫째 주에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e북을 구매해서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을 들으며 또 한주가 지나갔고 황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황산의 경치를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며 내가 아직도 중국에 와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순천향대학교에서는 내가 가끔 커 보일 때도 있었는데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활을 하며 지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고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중국에 온 이상 더 많은 것을 보고 눈에 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발표도 많이 하고 문화수업도 더 열심히 들어보고 자유 시간에는 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은 중국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나가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도 백화점이라도 가서 걸어 다녔었습니다. 3주차가 끝날 때쯤 상하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자방에 가서 구경을 하고 상하이의 야경을 유람선에서 보며 중국을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또 상하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복수전공을 하며 어떻게 남은 학년을 보내야할지 머릿속으로 대략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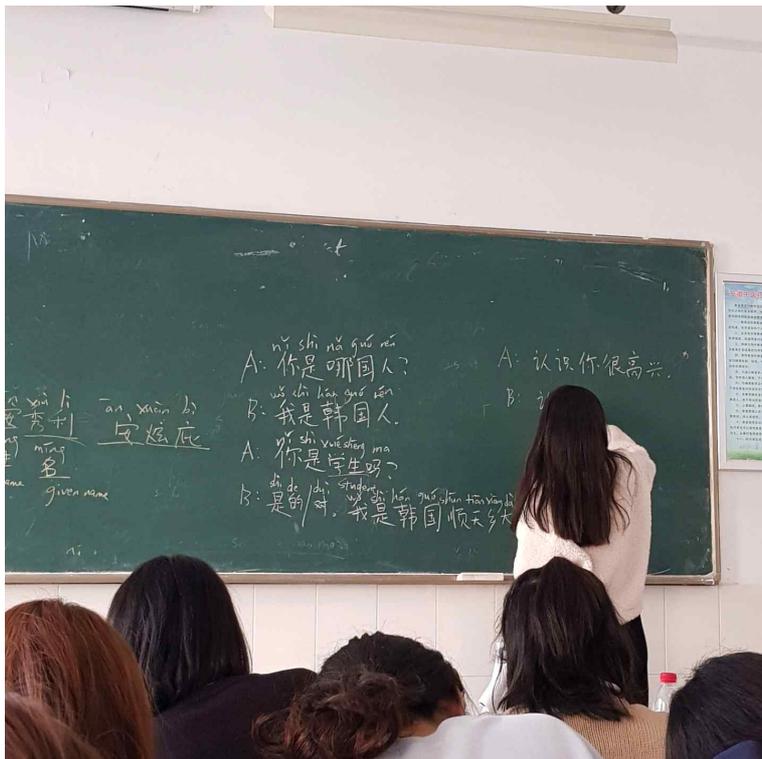
4주가 지난 지금 단기어학연수를 지원하기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4주는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다 혼자 가게 되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한국에 돌아온 후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생긴 것 같습니다. 2학년이 끝난 지금이라도 이런 기회를 주신 학교와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16. 사진첨부(현지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허페이 시내〉



〈중국어 말하기 수업시간〉



〈오후 문화수업〉



- 중국매듭 수업

〈황산〉



〈홍촌〉



<상하이>



<야시장>



<포공원에서 2019년을 떠나보내며,,,>

